무조건 주인공에 맡기면서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나가세요

☞ 21면에서 계속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정글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중세계에서 승진을 하느냐 하천세계로 좌천이 되느냐 하는 판국이죠. 좌천이 되면 세세생생에 쳇바퀴 돌듯 그냥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끌려다니면서 고(苦)를 면치 못해요. 자기뿐만 아닙니다. 수십억의 중생들이 내 몸속에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눈팔 사이가 어딨습니까? 그렇다고 신경을 쓰고 모질음을 쓰면서 '아이고, 이걸 끊어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데, 공부를 어떡하면 잘할까?' 이런 걱정 근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 생활이 종교이고 참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사실,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참나를 발견하는 지름길?

질문 : 제가 요즘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행 방편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나를 발견하는 지름길은 없을까요?

답변 : 하하하. 이런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물질로서의 현자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현자만 가지고는. 그래서 "전자 부(父)와"라고 하죠. 부처님이 부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금 시쳇말로는 전자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전자 부라고 합시다. 전자와 현자가 한데 합쳐지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한데 합쳐져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방출이 되죠. 많이 방출이 됐다가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제자리에서 적게 배출될 수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한다 덜한다 말할 수도 없고 한계가 없어요. 상대가 되는 어떠한 물체가 작으면 작은 대로 바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합쳐지니까. 그리고 크면 큰 대로 발산이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발산이 되니까.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생산이죠. 이건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산이죠. 생산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능숙해지면, 앞서 거쳐 왔던 진화 과정은 그냥 한데 합쳐져서 없어지고 다시금 또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적인 문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기고, 요거는 몇 자고, 요건 둘레가 얼마고, 요거는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요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니라." 이러셨어요. 오신통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다.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아는 사이 없이 알고, 어디서 온 거를 아는 사이 없이 또 알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이 문제를 그렇게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안통을 알고 천이통을 알고, 타심통을 알고 숙명통을 알고, 신족통을 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비교를 한다면, 과학자들이 오신통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오신통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알 길이 없죠. 이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마음대로. 우주 세상 삼라만상, 즉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심, 이 삼심(三心)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모두 지혜롭게 어디 걸림이 없이 아주 여여할 텐데,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어항 속에서 고기가 나오지 못하는 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공기통 안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기 바깥으로 벗어나도 아주 광대하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첫째는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깥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행하는 전체를 바로 내 그 알맹이가 하는 거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영원한 뿌리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물질도 자기가 형성시켰는데, 형성을 시킬 때에는 정자 난자를 빌려서 같이해야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가 형성을 시켜 놓고 자기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자생 중생들은 전자에 살 때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이기 때문에 오신통이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에 살던 입력이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력된 자리에다 내 형성된 것까지 일체 다 맡겨라. 몰락 맡겨라. 거기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거니까, 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니까 모두를 거기다가 몰락 다 놓으라는 거죠. 놓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 안에도 자생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려도 뭐가 있고, 뭐가 걸리고, 조그만 일은 놓을 수 있는데 큰일이 생기니까 못 놓는다고 합니다. 못 놓긴 뭘 못 놓아요? 아니, 자기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말입니다. 자기가 혼자 먹고 가는 겁니까? 혼자 다닙니까? 아니,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덩어리가 지금 다니는데 혼자 다닙니까, 놓을 수 없느니 놓을 수 있느니 거론이 붙게? 진짜 놓을 수만 있고, 양자가 바로 전자라는 걸 안다면 진짜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고질적으로 허리가 아픈데…

질문 : 저는 고질적으로 허리가 아픕니다. 계속 관을 하다 보니 고통이 좀 덜해지긴 한 것 같은데 시원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인가요?

> 깊은 정글을 지나가는데 거기 무슨 잡담이 필요하며
> 어디다가 정신을 팔 수 있겠습니까?
> 오로지 나아가면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 그냥 타파하고 가는 겁니다.

답변 :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병원의 의사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잘못됐는데, 의사들은 알죠. 이 의사 저 의사 불러다가 다 해 보니까 이건 뭐, 급박해졌어요. 이제 문도 닫게 되고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을 생각하니 그냥 눈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길래 알았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알았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것이 가벼운 대답이었다면 아마도 그건 안 됐을 겁니다. 무거운 대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각부터 달라지면서 부위가 그냥 다 정상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의사인데도 '이건 내가 의사 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탁! 아예 만사가 다 버려지더랍니다. '나는 의사 될 자격도 없고, 우리가 모두 거기만 매달려서 연극배우처럼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랬듯이 그런 걸 좀 알려면…, 지금도 시들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파서 재고 재고, 또 들고 또 들고 해야 합니다. 육조 스님도 둘이 아닌 도리에서 나투는 도리를 배우려고 그냥 12년 동안이나 또 뭉쳐 놓고 그렇게 하셨죠. 몸은 팔방으로 돌아다녔으나 마음은 한 군데다 항상 일념으로서 두셨다는 얘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천차만별로 살림살이를 사시겠지만 그 살림살이는 바로 여러분의 그 불성, 한마음 속에서 들이고 내는 겁니다. 일체가 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모두 살죠? 똑같이 숨 안 쉬면 죽을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숨 안 쉬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일체 만물만생이 다 숨쉬고 살듯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포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개별적이고 하치않은 나,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귀중한 한마음입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자기 한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지수화풍이 동시에 같이하는 것인 반면에 또 그 지수화풍 속에서 갈라지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지수화풍이 있기 이전에는 어땠구요, 또. 천차만별의 이름이 전부 모여서 그걸 이룬 거 아닙니까. 산소와 수소가 한데 합치니까 물이 됐듯이.

그러니까 그 허리가 그대로 낫게 되는 거죠. 허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낫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고, 또 입이 돌아가거나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냥 침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야단나죠. 그렇다고 그런 걸 말할 수도 없죠. 애통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말해 볼까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죽고 사는 것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건 법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입니다. '그럭하면 뛰어넘을 수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대로 뒷받침만 하고 가는 거지 어떡합니까. 내가 죽고 살고 이런 거를 떠나야만이 된답니다.

그까짓 거 캠핑 나와서 놀다 가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팍팍 놔 버리지, 그놈의 걸 뭐 때문에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놀러들 가시죠? 놀러 가실 때는 바로 탄생하는 겁니다. 다 놀고 들어올 때는 멸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잠시 잠깐 가서 놀다가 올 거를, 뭘 그렇게 그냥 서로 찢고 뺏고 모두 살겠다고 애를 쓰고, 더 살겠다고 그러십니까.

손주가 마음을 못 잡아요

질문 : 저의 손주가 고1 때 중퇴를 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다니는데 한 군데 며칠을 못 다니고 게다가 도벽이 생겨서 자꾸 남의 물건을 훔쳐오고 또 친구들을 데려다가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제 말은 씨가 먹히지도 않고요. 자기 엄마는 벌어먹느라고 밤마다 일하러 가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요?

큰스님 : 그 백 마디 천 마디 해도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온 거라면 과거에 살던 자기 주인공한테 모든 걸 관하시고 거기다가 그냥 편안하게 놓으세요.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마음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고생이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체가 없는 마음이 주인이고, 체가 있는 자기 몸은 체가 없는 자기에게 시자일 뿐이다. 시자가 그저 마음 따라서 잘하되 그 시자고 주인이고 그 가운데 내가 이게 보고 듣고 하는 판단이 흐리면 안 되죠. 흐리게 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그냥 진행하고 나가세요. 이익한 일이면, 남이 이익하다면 거짓말도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해서 거기다 맡기고 나간다면, 무조건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그냥 그렇게 나가면서 점프하시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그 요량을 몰라서 그렇지, 이거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자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정말이지 그 큰일 나는데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보고도 아,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거기다 그냥 맘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음의 기탄이 없고 걱정이 없으니깐…, 아이, 급하잖아요, 주인공이. 영혼이 자기의 영혼을 시켜서 그 영혼을 끌어오니까, 마음이 끌려오니깐 육체도 끌려오죠. 그렇게 해서 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 절에 가도 고만 안 가도 고만, 마음공부 하는데 가면 뭘 해? 여기 집에서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길에 오다 가다가도 배우는 수가 있는데, 이 스님네들한테 와서 또 이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토론을, 얘기를 하는 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마음공부를 잘하시면 덩달아 따라서 그거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해 보세요,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